





## “AGD 경과조치 3월부터 3년간 시행”

이수구 협회장 전문지 기자회견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치협 정관상 명시된 의무를 다한 회원에 한해 경과조치 기간 중 소정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수구 협회장은 2월 3일 치협 회관에서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해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경과조치 시행 배경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AGD 수련제도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진료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존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이미 지난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AGD 제도 시행 이전의 회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엔 경과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협회장은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정관상 의무를 다한 회원은 누구나 경과조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시행 기간은 3월 1일부터 3년동안 이뤄지며, AGD 자격 취득을 원하는 회원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동안 지원서를 치협(AGD 수련위원회)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입영·임관 대상자의 경우에는 입영·임관이 완료된 후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별도로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서 제출 시 소정의 수수료(10만원)와 함께 본인이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을 시간당 1만원으로 책정해 교육비를 납부하면 된다. 가령 면허 취득후 경과년수가 1년에 미달하는 자는 수수료와 필수교육비를 합해 모두 1백70만원(수수료 10만원+필수교육(160시간) 시간당 교육비 1만원×160시간)을 납부하면 된다. 면허 취득후 경과년수가 10년 경과한 자는 모두 90만원(수수료 10만원+필수교육(80시간) 시간당 교육비 1만원×80시간)이며, 면허 취득후 20년 이상된 자는 모두 18만원(수수료 10만원+필수교육(8시간) 시간당 교육비 1만원×8시간)만 납부하면 된다.

AGD 자격 신청을 위한 의무교육 시간은 면허취득 경과년수가 1년에 미달하는 자는 200시간,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시간에서 면허취득 경과년수의 10배수를 공제한 시간으로 정해지게 된다. 아울러 협회장이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의·치의학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협회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인턴과정을 포함해 3년 이상 수련 이수자는 10시간을 추가로 감경할 수 있으며, 다만 학위취득과 수련이수는 중복해 감경할 수 없다. 가령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자는 100시간, 15년이 경과한 자는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AGD 자격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면허취득 후 20년 이상 경과한 자도 치과의료윤리 등에 관한 필수교육 2시간을 포함해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교육시간에는 AGD 수련위원회가 주관해 시행하는 교육을 포함해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 AGD 교육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필수교육이 80%이상 포함토록 했다.

이 협회장은 “AGD 수련위 검토결과 오는 4월 16~18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치협 종합학술대회에 등록, 참석하는 회원에게는 보수교육점수 4점 외에도 AGD 수련이수 필수교육 8시간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8개 각 시도지부 자체 또는 공동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도 AGD 수련위에서 학술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한 후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 AGD 교육에 부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수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협회장은 교육시간 관리와 관련해 “이번 경과조치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주어진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회원 ID카드 발급을 비롯한 RF전자카드제 도입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출·결석 등이 정확히 체크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일부 사실연수회의 경우 학문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았음에도 수 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사교육비가 책정돼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AGD 경과조치가 고액을 들여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의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전시회 부스 배경 “투명하게”

치협 종합학술대회·기자재전시회 부스 추첨식 도입

제47회 치협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치협은 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각각 2개와 1개 전시부스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치협 회관에서 부스 추첨식을 진행했다.

이번 부스 추첨은 전시부스 배경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치협 전시회 역사상 처음 도입된 것으로 기존에는 치협 차원에서 전시 부스를 일괄 배정했다. 하지만 올해는 3개 부스까지는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위치를 배정하고 나머지 1, 2개 부스규모로 참여하는 업체는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추첨형식으로 부스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치협은 10일과 11일 김종훈 자재·표준이사의 진행아래 각각 2개 부스를 신청한 19개 업체와 1개 부스를 신청한 47개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부스추첨식을 진행했다.

이날 부스 추첨은 전시회 신청서 접수일자, 부스대금 납입일자, 경품제 공업체를 점수화한 집계를 통한 우선순위 등의 기준으로 번호 추첨 순서를 정한 후 각 업체 별로 부스 위치를 선정하도록 했다. 단, 이날 추첨식에 참석하지 않거나 늦게 참석한 업체는 순서에서 제외했다.

이번 부스 추첨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같은 부스비를 내고도 선호하는 위치에 부스를 잡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추첨을 통해 투명하게 부스위치를 선정한 만큼 이 같은 불만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부스 추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치협 제47회 치협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에 전시부스 참여를 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